

제2부 좌담회 토론문

〈제1주제〉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 세계와 한일관계

- 왜구의 구성문제를 포함하여 -

손승철 : 그럼 시작할까요? 일정에 따라서 저희 2분과의 모든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좌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그동안 발표된 주제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대주제를 발표했는데, 주제당 대략 1시간 이내 대략 50분정도 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합쳐서 3시간 정도 해서 오전 중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방식인데 세 주제를 시대 순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선 발표자께서 그동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충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충사항이 끝나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발표를 했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난번에 토론된 범위 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정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 세계와 한일관계-왜구의 구성문제를 포함하여->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연구사로서 일본측에서는 나카다 미노루(中田稔) 선생, 한국측에서는 김보한 선생이 발표를 했고 주제발표는 일본에서는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선생님께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에키 선생님께서 혹시 보충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보충내용이 있으면 말하고, 그리고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에키(佐伯) : 그러면 저부터, 사에키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일한관계>인데, 우선 첫째로 전제가 되는 국제관계, 이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동아시아 세계라는 것이

이 시대의 일한관계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14~15세기의 일한관계를 동아시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이 일한관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왜구의 문제가 큰 원인이 되는데, 특히 15세기에 독자적인 일한·한일의 국제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의 하나의 큰 주제인 왜구의 구성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카다 선생님, 김보한 선생님이 연구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 나름대로 논문 그리고 사료를 본 결과, 일본에서의 오래된 견해, 즉 전후의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선생님,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선생님의 전기 왜구의 견해, 즉 그 주요한 구성원은 역시 이키(壹岐), 쓰시마(對馬), 마쓰우라(松浦) 지방의 해민들이라는 이해가 가장 옳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당시의 해민들이 왜구를 가장하여 왜구가 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왜구의 주류는 아니라는 것은 사료상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왜구를 파악하는 데에서 중요한 점은 왜구의 실태를 조금 더 자료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왜구와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본 국내에서 왜구를 보는 시점과 동아시아 세계에서 크게 왜구를 보는 시점이 둘 다 필요하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라는 틀을 넘은 굉장히 큰 흐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14세기 말~15세기가 되면 일본 그리고 조선에 류큐나 동남아시아의 배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그러한 흐름을 전제로 하여 일본에서 조선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산 물자, 예를 들면 후추 같은 것을 들여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흐름으로서는 상당히 널리 동남아시아에까지 미치는 환지나해 세계 속에서 일한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특별히 보충이라기보다도 저는 제 주제발표 논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구의 창궐이 1350년, 그리고 1370년대에 있었는데, 그 왜구의 창궐이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변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래에 왜구의 구성에 관해서 “고려인,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설과 그리고 ‘제주도 해민설’에 대한 견해가 있었습

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려·조선인설의 소위 ‘가왜 사건’은 1382년과 83년도에 강원도 영월에서의 ‘가왜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해민설’은 사료가 대략 1470년, 80년대의 ‘수적 사건’에 관련된 사료이기 때문에, 전기 왜구 그러니까 1350년에서 1450년대를 훨씬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왜구의 약탈행태를 분석하면서 《삼강행실도》라는 사료를 분석을 했는데 《삼강행실도》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안견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 발표 때는 추측만 했었습니다만, 광해군 시대에 《동국신속삼강행실도》라는 사료가 또 나옵니다. 그 사료의 찬집 의뢰를 보면 《삼강행실도》의 그림은 안견이 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견이 그린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삼강행실도》의 무기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스카와 선생님이 주신 일본 무기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삼강행실도》에 등장하는 무기가 중세 일본 무사들이 사용했던 무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보충해서 논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사에키 선생님과 제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사 그 다음에 발표 내용, 오늘의 보충 설명을 포함해서 추가로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황 :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계황입니다. 사에키 선생님 발표와 그 내용을 잘 읽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의 논문 내용 중에 “14세기, 15세기는 한반도에 나타나는 왜구의 중심 주체는 3도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5세기 중엽으로부터 약간 변화가 보여서 무역의 중심은 류큐와 일본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류큐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위사 파견도 대단히 중요한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류큐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률적인 책봉체제라는 부분으로부터 일본과 제국(諸國), 중국을 제외한 제국과의 관계가 소중화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책봉체제에 의한 동아시아세계, 그에 의한 전개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단히 다른, 아주 새로운 이론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의 책봉체제론 조공체제론에 대한 상대

화의 작업을 진행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단, 이러한 소중화 개념을 사용해서 역사를 서술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화 개념을 써서 이 논문에서 완벽하게 구사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서 기존의 역사서술과는 달리 이 소중화 개념을 써서 역사를 서술할 경우 달라지는 면이 어떤 점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에키 : 예, 질문과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라는 것이 책봉체제론의 관점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이 일원적인 것인가 하는 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국에서 이 동아시아 세계를 보았을 경우에는 책봉체제 혹은 화이질서라는 것이 이 세계를 망라하여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주변 국가들이 이 세계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사가 전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동아시아 세계를 본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 보았을 겨우 실은 명,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이질서, 책봉체제가 그다지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401년 일본은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에 의해 명의 책봉체제로 들어가게 되지만, 약 10년 후에는 일본은 중국에 조공을 하지 않게 되고, 20년 이상 책봉체제에 들어가지 않는 시기가 있었고, 명의 책봉체제가 구석구석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보았을 경우의 동아시아 세계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견해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견해, 좌표축을 류큐·조선·베트남 등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동아시아 세계를 보아도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중화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베트남 같은 곳에서도 중국의 미니 중화세계를 만들어 내려고 했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세계, 일원적인 중화세계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비슷

한 작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움직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주변 국가들이 만들고자 한, 소중화라고 일단은 부르고 있지만, 이 세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세계가 같은 질의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점이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중화세계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명료한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일본과 류큐의 관계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교문서의 형식적인 상하관계는 지적할 수 있지만, 조공과 책봉이라는 명확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국의 중화세계와 질적으로 다른 점으로, 그것을 소중화라고 불러야 할지 말지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선생님.

한명기 : 예. 아까 이계황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에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15세기 왜구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문제보다는 이 시기의 한중일 3국의 무역관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조금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사에키 선생님의 발표를 보면, 1401년에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책봉을 받은 이후 1547년에 19차 견명선을 통해서 감합무역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의 견명선이라는 게 다수의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나중에 무역은 결국 호소카와(細川) 씨와 오우치(大内) 씨의 파견 주체로 옮겨가면서 무역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523년에 있었던 ‘영파의 난’이라고 있지않습니까? ‘영파의 난’에서 ‘영파’는 나중에 구와노 선생님의 발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히데요시가 명을 정복한 이후에 자신이 영파에 거주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앞으로 완고를 하실 때 좀 보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파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과 명 관계,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조선하과의 관계에 어떤 임팩트를 주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영파의 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이 일본하과의 견명선 무역을 계속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이 우선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에키 : 예, 이번 저의 주제는 14~15세기의 문제로, 16세기에 들어가는 ‘영파의 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이 ‘영파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일본의 건명선이 중국의 영파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의 일명감합무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앞서 한명기 선생님도 호소카와 씨, 오우치 씨가 파견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시대, 호소카와 씨와 오우치 씨가 일명감합무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게다가 호소카와 선(船), 오우치 선이 동시에 영파에 도착해 버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호소카와 선 대 오우치 선의 항쟁, 다름이 현지에서의 소란으로 확대되고 그 결과로서 ‘영파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일명관계는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측에는 감합무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고, 명으로서도 조공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관계가 수복되어, 다음 건명선이 파견되게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일한관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난이 일어난 후에 일명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일본으로서는 조선 국왕을 중개로 하여 일명관계를 호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난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고맙습니다. 지난번 발표 때보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인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해지면 곤란할 것 같으니,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구와노(桑野) : 손 선생님의 발표는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삼강행실도》의 왜구 관련 기록을 해설·소개하신 것 말입니다만, 실은 일본 쪽에서는 1991년에 규슈산업대학의 오사 세쓰코(長節子) 선생님이 공개강연 형식으로 발표하셔서, <조선과의 교류-중근세를 중심으로>라는 공개 강연을 나중에 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안에 2페이지뿐이지만, (자료를 내보이며) 이러한 형식으로 그림을 소개하면서 간단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삼강행실도》에 쓰여 있는 전부 9건의 기록인데,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여도 좋을까 하는, 즉 조금은 픽션이, 이야

기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조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즉 《고려사절요》 혹은 훗날의 《조선왕조실록》과 상당히 비교해 보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사실과 합치하지만, 여기부터 나머지는 의심스럽다든가 말이지요. 전부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어디까지나 이 《삼강행실도》라는 것이 역사서라기보다도 교화서(敎化書) 같은 역할을 당시에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전부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오륜행실도》라는 것이 조선왕조의 후기에 편찬 되는데, 그것을 보면 9건 중 3건, 최 씨의 이야기인데, 최 씨가 화를 내며 욕을 퍼붓는 이야기와 그리고 열부(烈婦)가 강에 뛰어든다는 이야기와, 세 번째가 임 씨가 다리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후세 조선왕조 후기에 《오륜행실도》에는 남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남고 나머지 6건은 배제되었는지, 나중에라도 관촬스럽지만, 만약 알고 계신다면 왜 이 3건이 남은 것인지 하는 점을 좀... 시대가 조금 벗어나기는 합니다만,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로 시대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후에 왜 이 세 가지가 남게 되는 것인지를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승철 :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오사 세쓰코 선생님이 쓰신 것은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 나중에 돌아가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삼강행실도》라는 것이 당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텍스트적인 성격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역사 사실에서 교육용으로 조금 바뀌어진 것이 아니냐, 역사 사실로서의 가치를 얼마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발표할 때 하나하나 사건에 관해서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고려사절요》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9건에 관련된 내용이 《고려사절요》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려사절요》에는 구체적으로 내용까지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로서는 의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큼 과장이 되었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전부 5건의 ‘행실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한 것이 이 《삼강행실도》이고 그 다음에, 《속삼강행

실도》 《이론행실도》, 그 다음에 《동국신속삼강행실도》, 그다음에 《오론행실도》 이렇게 5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요즘에 그 5가지에 등장하는 일본 관련 ‘행실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어느 책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고 어느 책에는 안 들어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삼강과 오륜이 다르기 때문에 삼강에는 충, 효, 절이고, 오륜은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등으로 뭔가 그런 관계에서 편집상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 공동연구보고서에 쓸 때는 그 부분까지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스카와(須川)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손 선생님의 보고 가운데 고려 말기에 이미 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남쪽에 말이지요, 그런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고려사》였던가 《고려사절요》였던가 기록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시기에 특히 왜구가 날뛰고 있던 시기에 고려 정부가 왜 왜인이 그런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을까, 혹은 고려 정부의 국토의식이라고 할까 영토의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나? 아마 북방 쪽으로 가면 여진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법한 지역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고려가 자신들의 그 국가를 복수의 민족집단에 걸친 제국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왜인이 남쪽에 쓸쩍 들어와 살고 있거나 하는 것도 허용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저로써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손승철 :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근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쿄 대학의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선생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널 맨(marginal man)’, 소위 말해서 ‘경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제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은 상당히 통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4~15세기의 영토의식, 국경의식 이런 것은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생활 거주 공간이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상당히 폭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라든지 거제도라든지 남해안 일부 섬에 사실은 왜인들의 주거 흔적도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왜인들의 주거, 거주 흔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인 것인지 그런 것은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 그 시기는 왜구들이 동아시아 해역을 여기저기 약탈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인 거주지로서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어떤 거점으로서, 그때그때 약탈의 거점으로서 이용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되셨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일단 첫 번째 주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에서는 <14세기~15세기의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특히 아시겠지만 왜구의 구성문제가 역사적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동연구의 결과,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 왜구 구성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근접된 의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래의 “고려인, 조선인이 왜구에 포함이 되었고 또 제주도 해민도 왜구에 포함시키는 학설이 있었지만, 그것이 왜구의 구성의 주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왜구와 관련해서 연구사 정리나 주제 논문을 통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공동으로 표출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연구테마로 동아시아의 책봉체제에 관련해서 좀 더 각국의 입장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또 소중화에 대한 내용의 규명이라든지 또 일명 결과 있어서의 감함무역 내지는 일명관계에 조일관계가 활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연구 테마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가 아닐까, 이런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대강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첨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러면 제1주제에 대한 좌담회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2주제〉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 국제관계와 원인 문제를 포함하여 -

손승철 : 두 번째 주제에 관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 국제관계와 원인 문제를 포함하여 ->였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연구사를 한국에서는 노영구, 일본에서는 나카노(中野) 선생이 연구사 발표를 해주었고, 주제 발표에 관해서는 구와노(桑野) 선생님과 이계황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제발표에 관련된 보충 사항을 두 분 위원 선생님들로부터 간단하게 듣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계황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임진왜란에 관련된 한일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원래 저는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임진왜란이 ‘도요토미 정권론’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도요토미 정권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임진왜란에 대한 서술은 상당히 많습디다만, 그러나 임진왜란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무엇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대단히 적은 것처럼, 짧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의 학계에서도 대부분 임진왜란의 원인론에 대해서는 일본학계 학설들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의 일본사연구는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원인론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임진왜란 원인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입장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은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한 이야기는 1980년대를 끝으로 거의 전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한 정리도 이전 단계에서 연구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그에 대한 지향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는 사실 임진왜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그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서 임진왜란 원인론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서 보통 소개되고 있는 두 가지 학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학설은 좀 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론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원인론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임진왜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걸치는 문제로서 동아시아사적인 시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저의 연구 성과, 연구 방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문제를 분석을 했고 그 결과 만족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임진왜란 원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더 깊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감사합니다. 구와노 선생님.

구와노 : 저는 작년 8월 23일에 진주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실은 작년 12월 하순에 뉴오타니에서 열린 심포지엄의 보고입니다. 그 때에 보고한 내용이 실은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작년 8월 시점에서는 맺음말은 ‘분로쿠·게이초의 역’(文祿·慶長の役, 임진왜란) 이후에 명, 조선, 류큐, 일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전망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메모 정도로, 명의 경우에는 이 ‘분로쿠·게이초의 역’으로 명군은 원군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로써 재정 파탄이 일어나서 마침내 명청 교체가 일어난다, 이 명청교체를 화이변태(華夷變態)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그 후에 전후 10년이 지났을 쯤에는 정묘·병자호란으로 후금, 훗날의 청군의 침략으로 인해 나중에 조선에서는 소중화의식이 높아지는 그러한 방향을 걷게 됩니다.

류큐는 이것도 전후, ‘분로쿠·게이초의 역’ 이후인데, 사쓰마(薩摩) 번이 류큐에 침략하게 되어, 결국 류큐는 청과 일본 양쪽에 굴복하는 형태가 되어, 류큐 국왕은

류큐 사절로서 에도로 올라간다, 사은사(謝恩使)나 경하사(慶賀使)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종의 속국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후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명과 국교회복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좌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역은 이른바 ‘4개의 창구’라 하여, 예를 들면 사쓰마를 사이에 두고 류큐와 무역을 한다, 나가사키(長崎)를 중개로 하여 네덜란드 방면의 무역, 그리고 쓰시마를 사이에 두고 조선과의 무역이라는 식으로, 명과의 국교회복에는 실패하지만, 동아시아와의 무역이 전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지는 마쓰마에(松前)를 사이에 둔 아이누와의 무역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조선 소중화의식’이 높아져 가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른바 ‘일본형 화이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망을 쓸 생각이었지만,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은 10년 정도 전에 《반도와 열도의 국가들(半島と列島のくにくに)》이라는 대학생 대상의 텍스트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언급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의 맺음말에서는 전망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의 보충에 대해서는 1년 전의 원고에 빨간 글씨로 덧붙여 쓴 것을 일단 지금의 시점에서는 최종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경한 부분은 없습니다. 구성도 거의 그대로이고, 조금 보충 설명을 덧붙인 곳이 새로워진 부분입니다.

단, 제1절 부분에서는 <조선전기의 동아시아 국제환경>이라는 것으로 명과 조선과의 관계, 명과 류큐와의 관계, 명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관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명대에 있어서의 동남 제국의 공기(貢期)’로써, 조선의 경우에는 1년 3공, 일본의 경우에는 10년 1공, 류큐의 경우에는 2년 1공이라는 식으로 일람표를 신기로 했습니다. 조선, 일본, 류큐만이 아니라 이 표에 실었습니다만, 안남(베트남 북부), 캄보디아, 그리고 시암(타이의 아유타야), 참파(베트남 남부), 조와(자바 섬의 북부)라고 동남아시아 쪽은 3년 1공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표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8개국 중에서는 조선이 발군의 조공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일본은 10년에 1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본이 명으로부터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는지, 문제는 실은 왜구에 있는 것인데, 10년에 1회로 된다고 쓰여 있기 때

문에, 시각적으로 표를 넣는 것이 알기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쪽에서 오히려 이계황 선생님, 그리고 한명기 선생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A4 종이 2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국제관계라고 할까요, 국제관계는 실은 의례인데,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계황 선생님이 원인론을 중심으로 논술을 한다는 분담의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 논문에서는 원인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계황 선생님 자신의 견해, 혹은 그리고 한명기 선생님의 견해가 조금 궁금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듣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읽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점만 읽으면, 전남대학교 사학과의 박수철 씨가 최근에 쓴 논문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명설과 영토확장설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공명설은 무시되고 영토확장설만이 통설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의 관계에 있다. 영토확장설을 명확하게 지적한 사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명설에 관련된 자료는 많이 존재한다. 영토확장설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료로서 나타날 때에 공명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수철 선생의 의견으로는 임진왜란의 원인은 구조적인 차원의 공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신데, 이 견해에 관해서 이계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계황 : 공명설의 기본적인 발상은 사실 히데요시의 공명설이라는 부분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영토확장설이라는 부분에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당시의 자기 영지 확대 의욕이라는 부분에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공명설은 히데요시의 공명설이고, 그 당시 영토확장설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될 경우에는 전국다이묘(戰國大名)적 경향의 지속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전국다이묘의 공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분은 단지 이 시대의 특징은 아닙니다. 근세 이래로 전쟁을 통해서 공명을 얻고 그에 의해서 자기 영지를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선이라고 보입니다. 소위 군충장(軍忠狀)이라는 것이 항상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낸다고도 보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기의 이 문제를 임진왜란의 원인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 시대의 특징을 잡아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때 이 문제가 적당한 것인가 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국(戰國) 권력으로부터 근세 권력으로서의 진화과정 속에 임진왜란을 위치시킬 수밖에

에 없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명설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 당시의 모든 대명이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히데요시의 공명설이라는 부분과 영토확장설이라는 부분은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영토확장설이라는 것은 천하관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 차원에서 봤을 때 도요토미 정권 이전 단계에서의 천하관의 변화라는 측면과 관련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뒤의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질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박수철 선생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사료의 문제, 사료 비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자의 관계성에 대한 차원의 문제가 좀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와노 :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박수철 씨의 논문을 읽게 된 것은 실은 이성무 선생님, 이태진 선생님, 이현창 선생님의 공저인 《류성룡과 임진왜란》이라는 저술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명기 선생님이 좌담회에 참여하셨고, 그 때에 한명기 선생님은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도발한 원인에 관해서 발언하셔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감합무역을 재개하려고 한 차원에서의 도발과 관련하여, 1523년의 ‘영파의 난’으로 전국시대의 다이묘처럼 상당한 이익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재개하고자 할 의사가 강했다고.

특히 한명기 선생님이 주목하신 것은 히데요시가 왜 영파에 간다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역시 영파라는 지역이 일명무역의 상징성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박수철 선생의 경우에는 감합무역설이라는 것을 배제하시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한명기 선생님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박수철 선생과는 대립하는 것과 같은 의견이 되는 것이지요?

한명기 : 예, 구와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집담회에서 박수철 씨의 논문을 소개한 것은 그야말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일본 내의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한국측의 문헌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소개한 것이고, 박수철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이계황 선생님께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와노 선생님의 질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영토확장설이 한국측의 기록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에 조선의 국왕이었던 선조와 명나라 참모 유향상(劉黃裳)이라는 사람 사이에 논란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따르면 선조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당하게 된 이유를 일본이 추구했던 가도입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선이 대신 명의 침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명나라 장수는 화를 내면서 “일본이 명나라를 침략하려면 왜 굳이 조선으로 오느냐, 동남연해의 강남지방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더 빠를 텐데, 조선이 명 때문에 왜란을 당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왜구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명나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이 굳이 조선을 침략하여, 가도입명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이미 1592년 8월 이후로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평양에 머물면서 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좌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도입명이라는 말 자체를 조선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일본이 모를 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면 조선의 역량을 대단히 낮게 평가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무모한 것이거나 이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영토확장과 관련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과연 일본이 명의 영토를 노렸다고 한다면, 조선보다는 중국의 강남지방에 상륙해서 영과를 거쳐서 북상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현실적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도입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슬로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지향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영토를 노리기 위한 영토확장설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일단 이렇습니다.

이계황 : 보충 설명을 해도 될까요? 사실 임진왜란의 원인론과 임진왜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원인과 목적이 동일한 상태에서 판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기 보고서에도 임진왜란의 원인·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목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상태에서 영토확장설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영토확장설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

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을 침략한다는 것이 명이 됐든 조선이 됐든 관계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히데요시의 최종 목적이 명에 있었다든가 조선에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원인론을 분석할 때 도요토미 정권의 내부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초기의 문제와 중기의 문제, 다시 말하면 초기에 언급된 부분과 실제 침입할 때의 정치 상황 내지는 여러 가지 변화상을 아주 세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진왜란 원인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추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임진왜란의 원인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공명 심이나 영토확장이냐, 어떤 결론은 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원인론이 규명이 좀 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계황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와노 선생님의 임진왜란 원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약간의 보충설명 내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명외교의 기초가 감함무역체제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학설을 밝힐 때 ‘후지키설(藤木說)’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데요시가 명 중심의 감함무역체제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임진왜란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지키설’에 있어서의 히데요시의 조선 이해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지키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선은 총무사령(惣無事令)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명외교는 감함무역으로 이해했는지는 별도로 치더라도 조선과의 관계의 의미는 후지키 선생은 달리 보고 있지요. 후지키 선생은 이 문제를 외교 관계의 중층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지키설’에서 감함무역의 근거로서 제시한 것은 류큐에 전달한 문서를 가지고 증명합니다.

따라서 임진왜란의 원인이 감함무역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명무역에 있어서의 감함무역의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총무사령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선에서는 통일전략의 위치로서의 조선의 위치, 통일 전략의 연장으로서의 조선의 위치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요. 따라서 이 문제를 감함무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임진왜란의 원인으로
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와노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후지키 선생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지키 선생도 사실은 감함무역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은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
니다. 이에 대해서 구와노 선생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와노 : 제가 감함무역설을 전면적으로 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역시 원인론에
대해서 이제까지 감함무역 부활설이라든가 혹은 공명설이라든가 영토확장설이라든
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분출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만, 정두희 선생 외 편이 《임진왜란》, 부제가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라 하여 2007년 책입니다만, 최근 일본에서도 이것이 1년 지나서 번역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은 책 제목이 조금 바뀌어서 《임진전쟁》으로 굳이 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 논문에서 소개는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지만,
윌리엄 부트(Willem J. Boot)라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선생님이 재미있는 것을
썼는데, <《조선정벌기》의 속의 임진왜란>이라는 논문 속에 히데요시의 동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의 논문에 따르면 최초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히데요시가 제2, 제3의 계획을 착상하거나 혹은 승인하거나 했다
고. 그 히데요시의 계획이라는 것은 중국이 향수하고 있는 중심 권력의 지위를 일본
의 것으로 한다고. 제2의 계획은 조공관계 및 감함무역의 부활과 히데요시의 일본
국왕 책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시도, 결국 이것도 실패
하여 정유재란이라고 할까요, 최종적으로는 제3의 계획으로서 조선영토의 할양을
노리고 재출병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히데요시는 아마도 처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고, 단순히 생각하면
영토확장설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잇따라 실패하면서, 그것을 수정해 가는 것이 됩
니다. 그것은 복수(複數)의 생각이 있었고, “이제 이것은 무리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가자”는 식으로 해 나갔다고,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렇다면 감
함무역설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만. “이것이다” 하고 하나로 좁힐 필

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스카와 : 그러면 앞서 이름이 나온 《류성룡과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해서 저도 약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감함무역 부활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만약 감함무역이 부활했다고 하여, 이미 구와노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10년 1공이어서,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1590년대를 생각하면 포르투갈 인이 중국산 생사를 가지고 일본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은 중국인도 밀무역이기는 하지만, 일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무역으로 중국 상품을 입수하겠다는 경제적인 동기만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토의 확장이거나, 혹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우월한 지위, 이에 대한 조선이라는 것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직접 중국의 수도 쪽을 바다로부터 공격하는 것이 빠르지 않았겠느냐는 논의입니다. 실은 저도 임진왜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러한 질문이 한국의 토론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대답한 것은 당시의 일본의 조선(造船) 및 해운 기술로 생각하면, 수만 명의 군대를 바다 너머로 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입니다. 일본과 한국, 게다가 쓰시마를 경유해서라면 짧은 거리를 서틀로 몇 번이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세력의 군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중국의 영파까지 수만 명의 군대를 보내게 되면, 상당한 수의 군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일본 수군의 능력으로 보아 우선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중국의 수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쉬운 것 같은 육로 경유라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임진란의 원인 문제에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구와노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 길을 빌린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요. 선박의 능력이 있어서, 때문에 영파까지는 너무 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시마를 경유해서 조선에 가지 않으면 중국까지는 갈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배의 능력에서 보면, 가도입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까, 굳이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계황 : 그러니까 목표로서의 명을 기록한 문서는 많지요. 많은데, 그 많다고 하는 부분이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가의 부분이지요. 내부 문제에 의해서 전쟁이 필요하다고 치면 그것이 명이 됐든 조선이 됐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명기 :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천자문이 읽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구와노 : “백제로부터 왕인 박사가”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명기 : 그러면 임진왜란 이전부터 천자문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읽혔었겠지요. 제일 상식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천자문에 보면 가도멸곡(假途滅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서 궤나라에게 길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궤나라가 빌려 주니까 궤나라가 망했어요. 그것이 가도멸곡입니다.

가도입명이나 가도멸곡이나 논리적으로는 똑같다고 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조선 사람들이 가도입명이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듯이 일본 전쟁 지휘부도 가도입명 이야기에 맞춰 이것이 씨도 안 먹힐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지요.

가도입명은 길 자체를 빌린다는 명분에서는 분명 맞지만 그것이 과연 명분 이상의 것이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명 자체로 넘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리였고 1592년 8월부터는 일본의 의도가 역시 조선 영토 쪽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손승철 : 제가 한 가지만, 주로 원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구와노 선생님 발표는 국제관계를 망궤레를 통해서 파악했다는 게 대단히 새로운 연구방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임진왜란 직전,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그 다음에 임진왜란 후에 망궤레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쭙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최근에 수정해서 보내신 빨간 글씨 부분을 보면 히테요시가 책봉사를 일본에 불러 들였는데 히테요시의 책봉에 대한 진심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구와노 : 우선 말이지요, 임진왜란 이전과 임진왜란 중,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의 망궤례의 특징이랄까 변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만, 임진왜란 이전에 대해서는 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조실록》 자체가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단, 누락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표 2>에 실었습니다만, 대체로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 상에 남아 있는 현존 사료만으로도 이만큼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임진왜란 중에는 이것이 특히 한성을 탈환할 쯤부터 상당히 자주, 이제까지 이상으로 열심히 망궤례를 하게 됩니다. ‘재조의 은(再造의 恩)’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 갑니다.

임진왜란 후가 되면 더욱 그렇게 됩니다. 본래는 이 망궤례라는 것은 중국 황제의 생일, 그리고 황태자의 생일, 설, 그리고 동지, 이렇게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의 규정입니다만, 예를 들면 선조 39년 4월에는 천추사(千秋使), 즉 중국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을 북경에 파견할 때에 이 망궤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료로 말하면 56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게다가 같은 달인 3일 후 4월 29일에는 성절사(聖節使)를 북경으로 파견하는데, 그 때에도 망궤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본래의 규정에는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명에 대한, 황제에 대한 은의(恩義)라는 것이 점점 증폭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만, 조선왕조 후기의 이른바 소중화의의식이라는 것의 원형을 파헤쳐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후기가 되면 조선 국왕은 명의 최초의 황제인 홍무제,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 원군을 파견한 만력제, 그리고 명의 최후의 황제 숭정제, 이 세 명을 기리는 의례를 창덕궁 뒤에 대보단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합니다. 그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갑자기 조선후기가 되어서 명의 황제를 기린다고 할 경우에 무언가 역시 모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실은 망궤례라는 의식이 아난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자연히 훗날의 조선왕조 후기에도 ‘분로쿠·게이초의 역’의 기억이 있고, 게다가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등장하면, 그러한 아시아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실은 중화(中華)가 된 것이라는 그러한 점에서 조선 중화의의식이 높아집니다만, 그 원형이 어디인지를 더듬어 가면 이러한 의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후기의 대보단의 제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한 가설과 같은 것이 있어,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실은 어려운 것입니다만, 책봉사를 왜 히데요시가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인데, 아마도 히데요시는 책봉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봉사의 의미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책봉된다는 것은 명의 황제의 신하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분로쿠·게이초의 역’ 직전에는 조선으로부터 통신사가 옵니다. 그것도 슬쩍 바꾸어서 오고 있지만, 그는 그를 복속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화조건이 정리된 시점에서 책봉사가 일본에 오고, 히데요시 앞에 오는데, 어쩌면 히데요시는 예전의 조선 사절을 복속사절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명으로부터의 사절도 복속사절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가운을 입거나 기뻐하며 모자를 쓰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책봉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 히데요시가 책봉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그러한 약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역시 정식적인 기록 이외에 훗날에 남는 전기물(戰記物)이나 그러한 가운데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다른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렇게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기물(軍記物)이어서 역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좀처럼 히데요시가 무엇을 정말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손승철 :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꽤 됐습니다. 지금 11시 반인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관심사가 임진왜란 전후의 국제관계, 그것이 원인 문제였는데, 기존의 연구사를 정리했고, 두 분 위원님들의 발표를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원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번에 다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망궤레라든지 히데요시의 책봉 문제를 통해서 당시의 국제관계, 국제인식이 어땠는가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또 원인 문제에 관해서 단순하게 가도입명이라든지 또 공명심, 영토 확장, 감함무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계속 공동 연구가 진전이 된다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두 번째 주제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3주제〉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 통신사와 왜관의 의미를 포함하여 -

손승철 : 마지막 3번째 주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주제는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 통신사와 왜관의 의미를 포함하여 ->였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일본측에서만 왜관 연구사를 야마구치 씨가 발표를 했고 주제발표에 관해서는 스카와 선생님과 한명기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카와 선생님과 한명기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고, 그리고 간단한 좌담회를 하겠습니다.

스카와 :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17~18세기 동아시아 해역, 그곳에서의 일한관계의 연구라는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그러한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사 연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정도까지의 일본의 대외관계 이미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에도시대는 쇄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가사키에서는 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같은 이미지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선생님의 쓰시마·조선의 무역 연구라든가 혹은 아라노(荒野) 씨의 '4개의 창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가 새롭게 제시되게 되어, 단순한 쇄국 이미지에서 일본은 제한적인 대외관계를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고 하여, 거기에서 해금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 제시한 글로벌 히스토리라고 할까, 유통면에서의 지구적인 규모의 교역, 그러한 분야, 연구 동향에 영향을 받아서, 혹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특히 16세기 중반부터의 은, 이것이 주목되게 됩니다. 그것이 급속한 상업의 활성화를 동아시아에 가져와서, 그것이 17세기 말 정도가 되면 다시 또 안정적으로 되게 된다는 것이 최근 의논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저는 원래 경제사를 하는 사람으로 이번의 그 주제가 원래 제가 하고 있는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에 상당히 고생했습니

다만, 역시 일본에서의 연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관계 혹은 대외무역관계, 그 부분의 연구가 매우 많지 않나,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실제 17~18세기의 일한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각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에키 선생님의 보고에서도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심원적인 화이질서라는 종래의 도식, 이것은 오랫동안 그러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져 왔지만,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제각기 자국 중심으로 그 나름대로의 화이질서적인 의식, 상하·위상관계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중국의 예부, 조선에서의 예조에 해당하는 외교의례를 담당하는 관청이 에도막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일본은 그 외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또 그 막부의 중추가 안고 있었던 국제관계, 질서의식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막부가 직접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실은 네덜란드 인 뿐입니다. 중국과는 정식적인 국교가 없지만, 나가사키에 오는 중국인과 무역을 행하고, 게다가 이 무역의 막부의 대리인과 같은 형태로 무역을 담당하거나 혹은 외교라고 할까 실무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당통사(唐通詞)라는 세습적인 관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실은 중국인 출신입니다.

‘4개의 창구’라는 말로 말씀드리자면, 마쓰마에, 아이누, 이것은 마쓰마에 번에 완전히 맡겨버린다, 조선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쓰시마가 담당한다, 류큐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사쓰마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막부의 지위가 있는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와 같은 관리가 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도중에 중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관계를 여러 가지로 갖거나 혹은 직접 소군(將軍)이 있는 곳에 인사하러 오는 것은 실은 네덜란드 인뿐입니다. 네덜란드 인을 막부 같은 누대(累代)의 신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막부의 외교, 혹은 국제관계의 양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조선왕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외교의 모습이나 중국왕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외교의 모습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금 추가점의 하나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후에 조금 공부하고 알게 된 것인데, 17~18세기, 특히 크리스토프를 금지하거나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특히 서양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루손으로 추방하는 것을 17세기 초에 행합니다. 17세기라는 시기가 그

러한 가운데 막부의 위광(威光)이라고 할까, 그 지배하에 있는, 지배에 종속된 사람들 이라는 것으로 일본인 같은 것을 형성하는 시기였던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쪽에서 보면, 17세기 초의 울산 호적에서 본관이 흑룡강이라든가 大元 혹은 降倭와 같이 출신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인 17세기 말, 18세기의 호적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임진왜란의 기억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가운데 부산의 왜관에는 여자가 절대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것은 쓰시마로부터 온 남자들뿐이며, 또 조선 여성이 그 남자와 무언가 관련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예를 들면 삼포에 왜관이 있었던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엄격했을까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한국에서도 17세기경에 한국·조선인이랄까 한국인이랄까, 단순한 에스닉한, 예를 들면 하는 말이나 복장이 아니라, 어떤 공통의식과 같은 것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만, 두 번째의 이야기는 아직 전혀 실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추가적인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손승철 : 감사합니다. 한 선생님.

한명기 : 저도 주제는 스카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17, 18세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한일관계사 연구자들에 의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왜관과 통신사를 축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은 대체로 한일관계, 조일관계를 축으로 해서 왜관과 통신사의 발생부터 전개, 종료과정까지 상당히 상세한 설명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같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의지해서 논지를 전개시키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과를 더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그다지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다른 측면에서 왜관과 통신사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이 처해 있던 지정학적인 조건에 좀 더 주목을 기울여서 17세기 대륙에서의 명·청 교체가 조선의 대일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7세기에 있어서 대륙의 명·청 교체가 조선의 왜관 대책 그리고 통신사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어떤 구체적

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일본 관계를 떨쳐나가면서 명·청과의 관계를 특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609년에 국교를 재개하고 광해군 정권이 유화적인 대일정책을 썼던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일 적개심이 완화되고 심지어는 역전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조선에서의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일단 주목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619년까지도 조선에서는 대일 적개심이 대역진, 대청 적개심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인조반정, 정묘호란을 계기로 해서 대일 적개심은 상당 부분 밑으로 사라지고 청에 대한 적개심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 두 전쟁 호란을 계기로 해서 대청 적개심과 대일 적개심이 역전된다는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서 대일 적개심은 상당 부분 저류로 돌아가고 대청 적개심이 사회 전반에 퍼져가면서 그것이 북벌이라든가 그런 청에 대한 대항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측면을 당시의 주요한 인물들의 문집이라든가 그 발언을 통해 확인하는 측면을 보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대청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가 되는 18세기 이후에 가면 역시 대일 적개심과 대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지는 논의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보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른바 북학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대일 인식 혹은 그것과 맞물린 대외관 정책, 대통신사에 대한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조선의 왜관에 대한 인식, 정책 이것을 연결시켜서 대일정책과 대청정책 그리고 대일인식과 대청인식이 서로 상호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 일종의 가설을 한번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17·18세기 동아시아 3국 관계가 서로 상호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고맙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두

분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에키 : 한 가지 괜찮겠습니까? 한명기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명기 선생님의 보고는 한일관계를 동아시아 전체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매우 폭넓은 시점에서 파악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일본에 대한 정책 혹은 왜관에 대한 정책이, 조선의 대청 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셔서,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큰 관점에서 왜관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왜관 그 자체를 매우 미시적, 작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왜관에서는 일본인 통사(通詞), 통역과 조선인 통역이 실제로 외교라든가 무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시적인 부분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명기 : 사에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대일정책에서 일선 창구 역할을 했고, 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장소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끼리 접촉하고 서로의 연결이 이어지는 장소로서의 기능도 역시 쭉 계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역시 조선은 실질적으로는 왜관의 존재를 사실은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은 그 뒤의 시기까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관의 기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갔기 때문에 그 왜관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관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만은 20세기까지 변함이 없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황 : 사실은 스카와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글로벌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보통 보면 지나치기 쉬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단히 유용했습니다. 대단히 공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임진왜란 이후의 한일관계를 이야기할 때 일본사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법, 보통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대외관을 생각할 때,

‘일본형 화이의식’ 아사오 나오히로(朝尾直弘) 선생의 1960년대 작품입니다만, 이로부터 소위 ‘일본형 화이질서’,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 선생의 관점으로서의 이동, 그로부터 ‘쇄국문제론’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4개의 창구론’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사오 선생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사실은 일본 국내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소위 무위(武威)라고 하는 개념과 무관(武官)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사용해서 이 문제는 사실 내향 원리, 일본인에 대한 논리로서의 제기였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인지 ‘일본형 화이질서’로 전환되는 부분이 아라노 야스노리 선생의 관점입니다.

아사오 나오히로 선생과 아라노 야스노리 선생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명과 대치하는 일본, 즉 명과 일본의 대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일본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일단은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서 화이질서론으로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위치는 일본이 우위의 입장이라는 부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상호 규정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서 ‘4개 창구론’을 주장합니다.

조선의 경우도 사실은 소중화외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후의 국교재개 수단에서 쓰시마는 기미(龜麩)의 위치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에키 선생님이 주장하신 소중화 외식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좀 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과 조선은 대등 외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개 창구론’이 병렬적으로 서술될 경우 소위 명과 일본의 대등성,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의 일본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의 대등 외교라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한다면 ‘4개의 창구론’의 서술 방법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형 화이의식’의 입장에서 일본이 조선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 이전 단계에서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 통신사의 위치를 조공사라고 위치 짓는 부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을 대등 외교를 전개하면서도 조공사로 위치시키는 부분은 일본 내부의 문제 일본적 국내 요인에서 찾아내리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국내에서 조공사로 위치 짓는 내부의 어떠한 부분에 관련되어있는가 다시 말하면 국

내적 요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와 :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부분입니다만, 막부의 일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 일반에 대한 이야기의 태도는 역시 “공의(公儀)의 위광이 바다 저편 인국(隣國)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여러 외교의 장면에서는 대등하게 하고 있고, 그 뿐 아니라 오히려 18세기 초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지적한 것처럼 사절 등에 대한 대우가 과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일본 막부는 각종 연락 편지를 로주(老中)의 명의로 써서, 한국측의 예조참판 앞으로 보냈습니다.

로주라고 하는 직위는 조선으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필적하는 관직이기 때문에 의정 앞으로 보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즉 조선과 명의 외교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조선측의 예조가 중국 명의 예부에 보낼 때에는 그보다 아래 직위의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위의 입장의 사람이 아래의 입장의 사람에게 보내서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말하니, 이것은 이상한 말이지요. 오히려 행해지고 있는 실제의 외교 수속은 동아시아적인 상식 내에서, 유교적인 감각의 상식 내에서는 일본이 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 쇼군의 칭호를 대군(大君)이라고 규정했다고, 이것은 ‘대수원군(大樹源君)’의 줄임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들 하지만, 실은 대군이라는 것이 조선에서는 국왕의 왕자인 정적(正嫡) 왕자의 칭호입니다. 그것을 전혀 몰랐다고 할지 어떨지, 이것도 좀 의심쩍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이 국내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조선통신사는 조공 사절이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동아시아의 다른 외교 관습에 비추어 보면, 일본은 오히려 조선보다도 하나 아래에서 조선과 통교하고 있다고 하는, 매우 모순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몽땅 포함하고서, 우선은 대등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류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복속시키고 있었던 류큐에 대해서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아래라는 듯이 말하면서, 실제로는 대등, 혹은 아래의 대우에서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손승철 : 점점 더 이야기가 어려워지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논문 스카와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보충 설명에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스카와 선생님 논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통신사와 왜관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왜냐하면 그래야 이 결론이 맺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스카와 : 가장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럼 간단하게. 통신사라고 해도 처음에 온 것은 통신사가 아니라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이지요. 그것도 포함해서 생각한다고 해도, 일본으로 사절단을 보낸다, 이것은 역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임진왜란이라는 경험을 하고, “일본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조선측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측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이야기에 나온 바와 같이 마치 조선이 일본에 복속되어 있어 조공 사절을 보내온 것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던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조선의 유학, 이에 대한 일본의 유학자들의 관심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본의 유학자들이 통신사로서 온 사람들과 특히 그 서기(書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문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과 한시문을 교환하거나 혹은 그들이 그린 그림에 시를 붙이거나 하는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통신사가 숙박했던 절 등에도 여러 통신사가 남긴 글 등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조선정부의 정치적인 의도 혹은 일본의 에도막부의 정치적인 의도와는 또 별개의 차원에서 학문과 문화를 서로 전하거나 혹은 다른 물건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매우 좋은 기회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문화적인 것으로 왜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왜관이라고 하면 그냥 그곳에서의 무역, 한일·일한에서의 무역만이 주목되지만, 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적도 샀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류성룡의 《징비록》, 그런 것이 10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당시의 이른바 조선의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이 잔뜩 쓰여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유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겠지만, 역시 왜관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에서 인쇄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두

고 싶습니다.

손승철 : 혹시 말이지요, 막부에서 통신사를 조공사라고 본 사람, 그리 견해를 갖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왜관의 존재를 어떻게 봤을까요?

구와노 : 니혼진마치(日本人町, 일본인마을).

손승철 : 같은 시기에 동남아시아에 니혼진마치가 있었잖아요. 그리 것들과 어떻게 다르게 인식을 했는지.

스카와 : 다를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다시로 선생님이 쓴 것인데, 왜관에 일본으로부터 쓰시마 사절이 갑니다. 그러면 동래(東萊)의 객관(客館)인가요, 그곳에서 전패(殿牌)에 대한 의례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쓰시마로부터의 조공사절이라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부 안에서도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쓰시마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고, 막부의 위광과는 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통일적인 그 의례의 질서라는 것이 막부의 중심부에 확실하게 예(禮)의 질서가 존재해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외교가 확실하게 순위가 매겨져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관계에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조선을 아래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실은 외교의 의례적으로는 일본이 더 아래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모순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황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외관계 형성과정이라는 부분의 요즘 논문을 썼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임진왜란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할 때 소위 책봉체제라든가 조공체제라든가 조공사 등의 이런 문제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외교,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로 전환되어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문제가 임진왜란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의의이고, 그에 의해서 동아시아 세계는 변형이 되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에 의해서 막부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생각하였습니다.

손승철 :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선과 일본의 외교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조선왕조는 사실 외교정책이 어떤 틀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하면 실리를 주장하고 또 필요하면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게 병존한 단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고.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걸 좀 명확히 해주면 조일관계의 외교의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항상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지요.

스카와 : 그래서 실은 후마(夫馬) 선생님인가요? 그 분의 연구에서 나오는데요, 청조가 책봉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있는가, 류큐와 조선과 베트남이었던가, 그것뿐이었습니다. 3개입니다.

구와노 : 또 하나, 시암이.

스카와 : 아, 시암. 그런데 그 시기에 시암은 전혀 유교적 질서 같은 것과는 관계없는 나라였고,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자신의 나라에서는 황제라고 해서, 대월국(大越國) 말이지요, 독자의 연호 같은 것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류큐로 말하자면 사쓰마의 공격 이후 일본에 종속되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선 책봉의 나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책봉체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개념화하고, 도식화하여 그 가운데 자신들을 위치시켜서 이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마 조선뿐이 아니었을까? 그 밖에 제각각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이른바 아까부터 나온 화이질서라고 해도 상당히 허구 위에 성립되어 있다. 단, 외교의 장에서는 서로 그러한 것을 국제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틀로서는 존중하겠다. 단, 그에 구속력이 있는지 어떤지는 별개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와노 : 지금의 그 후마 선생님의 논문은 지금 제가 증보판의 주석 5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2페이지 아래에 주석 5번에 <1609년 일본의 류큐병합 이후에 있어서의 중국·조선의 대류큐 외교(1609年日本の琉球併合以降における中國・朝鮮の對琉球外交)>라는 논문입니다. ‘동아시아 4국에 있어서의 책봉·통신 그리고 두절’이라는 부

제목까지 붙어있어 매우 자극적인 논문입니다. 후마 선생님에 따르면 청대의 책봉국이라는 것은 조선, 베트남, 류큐 3개국뿐이었고, 기껏해야 겨우 시암을 더해서 4개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셔서, 이것은 매우 귀중한 의견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 경우에는, 명대인데, 조선왕조의 전반기의 책봉체제라는 것도 역시 수상하지 않은가 하고, 상당히 허구적인 부분이 있어서 중국 쪽에서는, 명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고, 현실은 어떠했는가를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명기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 한명기 선생님은 논문 속에서 하나 도야미(富山) 대학의 스즈키 노부아키(鈴木信昭) 선생님의 논문을 인용하셔서 <이조 인조기를 둘러싼 대외관계(李朝仁祖期をとりまく對外關係)>, 부제가 ‘대명·대청·대일정책과 관련하여(對明·對淸·對日政策をめぐって)’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스즈키 선생님에 따르면 인조시대의 대일관계는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항상 대명, 대청관계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선 하나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단, 스즈키 선생님의 경우에는 왜관 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사 상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의 한명기 선생님의 논문은 스즈키 선생님이 하지 못한 부분을 계승한 것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한명기 : 그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구와노 : 앞으로의 전망으로서 왜관 무역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싶다고 맺고 계시니, 연구사 흐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명기 : 스즈키 교수 논문은 제가 인용 차원에서 본 것이고 스즈키 선생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왜란 이후의 대일관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적개심으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인조반정, 정묘호란 그런 것 자체가 조선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의 관계보다 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왜란 이후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조선에 가해진 대륙으로부터의 외적 압력은 대단히 컸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

서 조선의 1차적 과제는 대륙으로부터의 외압에 대처하는 문제가 제일 컸고, 그것이 대일관계는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와노 : 감사합니다.

스카와 : 아마 정치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어쨌든 공격만 해 오지 않으면 된다는 정도로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경제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 (조선에) 팔지 않는 여러 가지 남방산(南方産) 물자, 예를 들면 소뿔 말이지요, 물소의 뿔, 이것은 활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무기의 재료이기 때문에 중국측이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왜관의 쓰시마 사람이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각계(牛角契)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은 동(銅), 17세기, 1678년부터 숙종대에 대량으로 동전 상평통보의 주조를 시작합니다만, 그 재료가 되는 동은 실은 왜동(倭銅)입니다. 18세기 말이 되면 국내에서도 동이 나오는데, 갑산동산(甲山銅山)말이지요. 그때까지 조선에서는 동전의 재료가 되는 것이 실은 왜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런 것은 없애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은 역시 당시의 조선정부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자의 중요한 공급원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명기 : 구와노 선생님의 질문 중에 경제적 측면 교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카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조선은 사실상 17세 중반까지는 명, 청, 일본, 거기에 미시적으로는 철산 앞바다에 있던 가도, 이 4군데에 대한 경제적 관계가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역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손승철 :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오늘이 사실은 2분과 공식적인 공동연구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의 공동연구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만, 한마디씩 말씀하시면서 좌담회 및 공동연구를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앓은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총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와노 : 이번에는 <동아시아 세계와 분로쿠·게이초의 역>이라는 주제 하에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이제까지 실은 일조관계라기 보다도 조중관계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명과 류큐와의 관계 혹은 명과 일본과의 관계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생각함으로써 제 자신으로서도 매우 많이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왕조의 위치를 생각할 경우에 류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연행사라고 할까요? 조선에서 중국으로 사절을 파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류큐도 사절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명으로부터는 책봉사가 온다는 것도, 역시 조선도 그렇고, 류큐도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류큐를 살펴보면 조금 더 동아시아 속의 조선왕조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키와 : 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역시 한국과 일본이 역사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갖는지, 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각각의 연구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이 양국의 역사학계에서 주제로 삼아졌는가, 혹은 왜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가를 약간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의 연구는 일본의 연구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사물을 보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고, 이것은 역으로 한국의 경우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것을 이번에 서로 상대화하면서 서로의 견해의 차이를 깨닫고 또한 이해하여 그 사이에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에키 : 이번에 일본의 많은 연구자, 그리고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연구자들로부터는 다른 장르, 시대, 그리고 주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매우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선생님들의 연구 보고를 많이 들음으로 해서, 사료의 차이,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알게 되어서,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넓은 지식과 시각, 다른 방법을 앞으로 제 자신의 좁은 연구 속에 활용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계황 : 구와노 선생님이나 스카와 선생님, 사에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모두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말한다면 선생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이 라든가 또는 고명하신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떻든 간에 우리들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일성 또는 그와 같은 동일한 추구점 등을 공감하게 되어서 앞으로 학문적인 교류도 하고 싶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명기 : 저도 모두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 대화가 대단히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연구위원회의 출발은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각은 왜구, 임진왜란, 왜관, 통신사와 같은 기본적인 쟁점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정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의 역사상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려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3국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 있는 관계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해서 귀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책봉체제라는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구조나 틀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고민을 기울여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손승철 : 고맙습니다. 저희 2분과에 주어진 주제가 중·근세 한일관계사 분야의 공동연구였습니다. 특히 쟁점 주제인 왜구라든지, 임진왜란, 통신사, 왜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그동안 공동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쟁점 주제뿐만 아니라 폭넓게 연구사 정리를 했고, 또 주제 발표 논문을 했고, 무엇보다도 사료해제집을 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우선 중점이 되고 있는 왜구 구성에 관해서 한일 양측에서 상당히 근접된 의견이, 견해가 제시가 됐고, 그리고 임진왜란 원인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또 왜관과 통신사 문제도 동아시아 전체의 틀 속에서 조명을 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일관계사를 보는 시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책봉체제에 대한 인식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 또 왜관이나 통신사를 보는데도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이 다 동원되어야겠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앞으로 보고서가 발표되면 많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2분과에서는 그동안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측을 상호이해하고 또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연구가 정말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정도 싹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면 앞으로 계속될 한일 역사대화의 하나의 공동연구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역사 갈등 해소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공유하면서 그동안의 연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